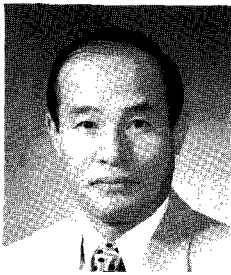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홍콩의 가금인플루엔자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홍콩의 가금인플루엔자가 홍콩의 오리
와 거위에서 검출되었으나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를 즉
시 도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는 홍콩의 닭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160만 수의 닭을 도살 처분하였다.

그러나 홍콩대학의 연구팀과 함께한 세계 보건기구의 연구자는
1,800수의 가금류 조사에서 10수의 농장 및 야생 오리와 거위에
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시험결과로 바이러스의 발생근원과 홍
콩의 농장사육 오리도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에 고민하고 있
다. 반면에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는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근원이 중국이 아니라 홍콩일 것이라고 하여 중국의 전문가
의 보고를 뒷받침하고 있다.(PD. '98. 5)

□ 전염성 기관지염의 변화

전염성 기관지염은 호흡기 계통에 우선적으로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혈청형의 전염성 기관지
염 바이러스는 다른 기관의 조직에도 감염하고 있다.

어떠한 혈청형은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수란관과 신장에 영
향을 주고 있으며 또다른 혈청형은 소화장기 내에서 뚜렷한 병리
학적 변화도 없이 증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분리된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는 흉근에 병리학
적 병변이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일령, 품종, 영양, 환경상태,
다른 질병과의 합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전염성 기관지염의 감염
경과에 영향을 준다.

닭에서 바이러스의 장기간 잠복은 맹장편도선 또는 신장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다. 미래에는 전형적인 전염성 기관지염의
증상이 없이 다른기관이나 조직에 감염되어 병변을 일으키는 전
염성 기관지염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였다.(PD. '98. 5)

□ 발생과정과 앵두관절

조지아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때때로 초생추에서 나타나는 앵두관절(무릎 관절이 염증으로 붉어지는 것) 증상은 발생기 온도와 발생시간의 길이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였다. 34주령부터 61주령의 종계에서 종란을 수거하여 받은 34.4℃의 저온에서 부화하고 받은 39.4℃의 고온에서 부화하여 발생시 앵두관절의 발생과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앵두관절의 평균 발생율이 저온 부화그룹은 15.8%이었고 고온 부화그룹은 9.6% 이었다. 그러나 부화율은 고온 부화그룹이 1% 정도 낮았다. 또한 병아리를 발생기에서 12시간 빠르게 꺼냈을 때 부화온도에 관계없이 모두 앵두관절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앵두관절의 발생은 발생과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과 파각시 병아리가 밀치고 나오려고 힘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부적당한 발생시간과 발생기 온도는 병아리의 앵두관절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결국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PD, '98. 5)

□ 여러 가지 요인이 복수증을 일으킨다

사양관리, 영양, 생리기능 등 모든 것이 육계에서 복수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벨지움의 가축생리 및 면역 연구소에서 보고하였다. 육계에서 육성기간에 복수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간헐점등방법을 조사하였다. 24시간동안 1시간 점등후 3시간 소등의 방법으로 23시간동안 계속 점등하고 1시간 소등하는 방법과 비교하였다. 시험은 9일령에 시작하고 42일령까지 2주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점등 그룹은 여러그룹으로 나누고 저단백(20.5%CP) 그룹과 1.5PPM의 갑상선 호르몬이 사료에 첨가된 표준단백(23.5%CP) 그룹으로 나누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대사과정의 자극효과가 있는 것이다. 복수증에 의한 폐사율은 사료에 갑상선 호르몬을 첨가한 그룹에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간헐 점등한 그룹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그룹보다도 복수증 발생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표준단백 수준의 사료를 급이한 그룹이 저단백 수준의 사료를 급이한 그룹과 비교하여 복수증 발생이 낮았다.

이 실험결과는 복수증이 수많은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이론을 재확인 한 것으로 육종형태, 대사기능, 영양수준 특히 단백질수준, 점등 등 모든사항이 복수증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PD, '98. 5)

□ 하수 유출물과 SE오염

살모넬라균(SE)에 감염된 계군이 있는 농장과 가까운 하천으로부터 흘러온 하수 유출물과의 관련을 조사하였다. 우선 1994년 7월부터 '95년 3월까지 27개 혈청형을 표시하는 68개주의 살모넬라균의 유입수(미처리하수)와 유출수(처리하수)에서 분리하였다. 68개주 가운데 39주(57%)는 7종류의 혈청형으로 SE가 8주(12%), S. cerro 7주, S. typhimurium 5주, S. tennessee 5주, S. give 5주, S. mbandaka 5주, S. panama 4주이었다.

SE에 오염된 계군은 76%가 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쥐가 SE(PT4)의 중요한 생물매개체인 것을 보여 주었다.(NK, '98. 6)